

양주 폐가에 묶여 있던 어린 강아지들



하재영
팅커벨 입양센터 공보팀장, 작가

팅커벨 입양센터에서 공보팀장으로 일을 시작한 초창기, 팅커벨 프로젝트 대표님과 함께 양주 폐가에 묶여 있는 어린 강아지들을 구조하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구조를 요청한 분은 팅커벨 프로젝트 회원으로 양주시에 사는 분이었어요. 양주시는 아파트 단지와 중심가를 벗어나면 논밭과 오래된 집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우리나라 시골에서 흔히 그렇듯 그곳에도 방치된 강아지들이 많았습니다. 그 회원 분은 방치되어 굶주린 강아지들과 동네 길고양이들에게 밥과 물을 챙겨주곤 했지요.

어느 날 그 분은 외딴 폐가에 묶여 있는 세 마리의 강아지를 발견했습니다. 생후 4개월이나 되었을까 싶은 어린 강아지들은 한눈에 봐도 뼈쩍 마른데다 모질이 좋지 않아 영양 상태가 극도로 나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폐가의 불결한 환경 때문인지 피부병까지 걸려 있었어요.

강아지들이 묶여 있는 폐가에는 사람이 살지 않았지만 그 강아지들에게도 주인이 있었습니다. 근처의 농가에 사시는 할아버지였지요.

할아버지는 하루에 한 번, 먹다 남은 잔반을 강아지들에게 가져다주는 것으로 주인이 해야 할 의무를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듯했습니다. 그 회원 분이 여러 번 할아버지를 설득했지만 할아버지는 강아지들을 치료해줄 생각도 없었고, 그렇다고 강아지를 내어줄 생각도 없었습니다. 왜 강아지를 키우시느냐고 물어도 재미 삼아 키운다는 대답뿐이었어요.

할아버지가 강아지를 키우는 목적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어린 강아지들이 깨끗한 물과 제대로 된 음식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쓰레기가 나뒹구는 폐가의 마당에 묶여 피부병으로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유기견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강아지들을 구조하려는 이유였습니다.

우리는 마을회관 근처에 차를 세운 뒤, 폐가를 찾기 위해 마을 여기저기를 걸어다녔습니다. 우리의 상황이나 강아지들의 상황과 무관하게도 어스름 무렵 나무가 우거진 시골길은 아름다웠습니다. 노을이 지고 있는 붉은 하늘을 가로지르는 검은 전신줄까지 풍경의 일부처럼 느껴졌어요. 제가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을 때 제 머리 위를 지나가던 새떼들도 평화로워 보였지요.

한참 길을 헤매다가 우리는 구조 요청자가 사진으로 보내준 것과 비슷하게 생긴 폐가를 발견했습니다. 폐가는 길에서 조금 떨어진, 야트막한 산 아래 자리하고 있었어요. 인적도, 가로등도 없는 곳이라 해가 지면 불빛 하나 없이 캄캄할 것 같았습니다. 풀숲을 헤치고 폐가 가까이 가자, 제보자가 말한 대로 짙은 줄에 묶인 세 마리의 강아지가 보였습니다.

우리가 마당으로 들어서자 강아지들이 일제히 짖어대기 시작했습니다. 마당 앞쪽에 묶여 있던 아이는 흰색과 갈색의 얼룩이었고, 마당 뒤쪽에 묶여 있던 아이는 검은색과 흰색의 얼룩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에 묶여 있던 아이는 검둥이였어요. 제가 쪼그려 앉아 몸을 낮추고 기다리자, 강아지들은 짖기를 멈추고 호기심이 가득한 눈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어린 강아지들답게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고개를 가우뚱거리면서요. 저는 앞쪽에 있던 얼룩이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고 제 냄새를 맡도록 해주었어요. 강아지는 잠시 쿵쿵거리더니 조심스럽게 제 손바닥을 핥았어요. 입양센터에서 일하는 제게서 다른 강아지들의 냄새가 났을 테니, 저라는 사람이 궁금했을지도 모르지요. 폐가에는 세 마리의 강아지들뿐이었지만 엄연히 소유자가 있는 강아지들이니 함부로 데리고 올 수가 없었습니다. 제보를 받고 찾아오긴 했지만 뾰족한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30분쯤 지났을 때 강아지들의 주인할아버지가 폐가에 나타났습니다. 할아버지의 손에는 먹

다 남은 김밥이 들려 있었지요.

“어디서 온 사람들이요?”

할아버지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우리를 쳐다보았습니다. 우리는 동물보호단체 사람들이라고 소개한 뒤 질병에 걸린 강아지들을 방치하는 것은 동물학대라는 사실을 말해주었습니다. 아마 할아버지에게는 동물보호단체의 존재도, 동물학대라는 단어도 생소했는지 모르겠어요.

강아지들의 공동 주인이라는 다른 아저씨까지 와서 약간의 언쟁이 있기는 했지만, 강아지들을 잘 치료해서 좋은 가정에 입양 보내겠다는 우리의 설득에 할아버지

는 두 마리의 얼룩이를 내어주었습니다.

“잘 살아라, 이놈들아.”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하지만

세 마리 다 내어줄 수 없다는

다른 아저씨의 강력한

주장에 겁정 강아지는 결국

그곳에 남게 되었습니다.

현행 동물법상 소유주가

있는 동물을 강제로 빼앗아

올 수 없으니 두 마리의 강아

지라도 구한 것을 다행이라고 생

각해야 할까요. 하지만 이동장에 두

마리의 얼룩이를 넣은 뒤에도 저는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 여전히 줄에 묶인 채 친구들이 떠

나는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김둥이가 자꾸 눈에 밟

혔어요. 할아버지는 두 마리의 바독이를 내어주며 ‘잘 살

아라’고 말했지만, 저는 김둥이를 남겨놓고 오며 ‘잘 살 아

라’고 인사할 수 없었습니다. 얼룩이들은 지금까지와는 완전

히 다른 삶을 살게 되겠지만 폐가에 혼자 남겨진 김둥이는 그

럴 수 없었을까요.

한동안 텅커벨에서 두 강아지는 ‘양주 꼬맹이들’이라는 애칭

으로 불렸지만 얼마 후 갈색 얼룩이는 ‘연두’, 검정 얼룩이는

‘들비’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어요. 모냥충이 의심되는 상황이었

었지만 연두와 들비 모두 불행 중 다행으로 곰팡이성 피부염

진단을 받았고, 연계 동물병원에서 한 달 동안 치료를 받은

뒤 입양센터로 오게 되었어요.

제가 텅커벨에서 일하기를 정말 잘했다고 생각했던 날 중의

하루가 바로 연두와 들비가 입양센터에 왔던 날입니다. 너무

나도 행복한 얼굴의 연두와 들비를 보며 정말 큰 보람을 느꼈

거든요. 두 강아지는 아주 어릴 때부터 함께였지만, 폐가에



연계동물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있는 룩이들

서는 각각 짧은 줄에 묶여 있느라 한 번도 함께 놀아본 적이 없었을 거예요.

입양센터 놀이방에 들어온 연두와 들비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주변을 살펴보더니 짹짹 소리를 내며 폴짝폴짝 뛰어다니기 시작했어요. 놀이방은 실내에 펜스를 친 작은 공간일 뿐인데, 두 아이는 그곳이 넓은 잔디밭이나 되는 것처럼 신나게 뛰어다녔어요. 연두와 들비에게는 그것이 처음으로 누리는 자유였던 거예요. 연두와 들비가 놀이방에 있던 다른 강아지의 개껌을 보고 너무나도 부러워해서 새 개껌을 하나씩

나눠주었는데 그때는 또 어땠게요. 생애 첫 자유, 생애 첫 놀이, 생애 첫 장난감, 생애 첫 개껌…

연두와 들비는 우리 주변의 반려견들이 당

연하게 누리는 것들을 유기견 입양센터에

온 뒤에야 처음으로 경험하는 것이었습

니다. 당연해야 할 그 모든 것을 너무

나도 놀라워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

는 두 아이를 보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앞으로 연두와 들비가 더 많은 ‘처음’을

경험하기를. 그리고 그 모든 처음이 하

나같이 행복한 일들이기를…

얼마 후 연두는 한국인 아빠와 베트남

인 엄마가 있는 집으로 입양

을 갔고, 들비는 캐나다인 아

빠와 한국인 엄마가 있는 집

으로 입양을 갔어요. 요즘도 두

입양자께서는 텅커벨 프로젝트

카페를 통해 연두와 들비의 소식을 전

해주고 있습니다. 두 강아지는 입양센터에서도 손꼽히는 순

둥이들이었는데, 입양 가정에서도 아주 착하게 지내고 있다

고 해요. 연두는 또 다른 반려견인 두두의 베스트 프렌드이

자 얼마 전 태어난 아가의 베이비시터로 잘 지내고 있고요,

들비는 부모님과 함께 캐나다로 이사를 간 뒤 행복한 나날

을 보내고 있어요. 하지만 연두가 신나게 뛰어노는 동영상이나,

들비가 캐나다의 공원을 달리고 있는 사진을 보면서, 저는 여전히 양주의 폐가에 묶여 있던 두 강아지의 어린 시절

을 떠올립니다. 그러다 보면 가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김둥이는 어떻게 되었을까. 그리고 하나의 생명으로 대우받

지 못하는 저 수많은 시골 개들은 어떻게 될까. 🐾